



축령산 편백나무숲

“학교·공원·아파트 수목피해 걱정마세요”

나주에 나무병원 개원… 진료전문가 육성,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진료하는 전남공립나무병원이 문을 열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17일 “광주·전남의 생활권 수목 진료체계 구축 및 기술 발전 촉진, 수목진료 전문가 육성을 위해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인 공립 나무병원을 최근 개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내에 문을 열었던 산림병원은 수목피해에 대한 정밀진단과 처방, 수목관리 기술 등을 보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생활권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국·공립나무병원 9곳, 대학 수목진단센터 3곳 등과 함께

새롭게 개원했다.

나무병원은 연구소 내 수목진료 전문가로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생활권 주변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 등 주민 밀착형 수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연구진에 의한 맞춤형 수목 진단 및 처방은 물론 중앙과 타 지자체의 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한국수목보호협회 등과 기술교류를 통해 정확한 방제 및 치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나무병원은 산림청과 함께 우선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수목피해 진단·치료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학교·공원·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피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전

문적인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시간적 여유, 자연에 대한 관심, 건강생활 등 생활패턴 변화로 도시민의 수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실내·외 조경수 및 관상수 식재가 늘고 있으나, 수목 식재·관리, 병해 등 방제법 등 전문성 부족으로 농약 오·남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서 나무병원 개원은 환경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가정의 조경수, 아파트 단지, 학교, 관공서, 도시공원, 관광시설 등에서 원인 모르게 수목이 고사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등 기존 수목 관리 및 병해



전남공립나무병원이 지난 12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내에 문을 열었다.

총 상담센터 역할을 한 단계 향상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상담 및 이용은 전남산림자원연

구소 홈페이지(<http://jnforest.jeonnam.go.kr/>) 또는 전화(061-336-6300)로 하면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 3381억 투입

영산강환경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62개 사업

작년比 10.6% 증가… 사업비 65% 상반기 조기집행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올해 영산강·섬진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262개 사업에 3381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3056억원에 비해 10.6% 증가한 금액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상대적으로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과 섬 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국고보조금 지역별 세부 지원 내역은 ▲전남도 2464억원 ▲광주시 477억원 ▲제주도 343억원 ▲경남도(하동·남해) 97억원 순이다.

사업별로는 ▲공공하수도시설 2692억원 ▲공단폐수 처리시설 413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78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55억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43억원 등이다.

등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분기별로 재정집행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진 공정이 부진한 사업은 국고를 일부 환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한 타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수질개선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영산강이 4대강 사업 등으로 예전의 모습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만큼 오염원을 줄이고 인근 생태하천을 복원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독도 서식 미기록 생물 11종 발견

대구환경청, 참매·원양·극동흑개미 등… 632종으로 늘어

독도에 서식하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미기록 생물 11종이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독도에서 서식하는 생물은 모두 632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17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4~9월 실시한 ‘2011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및 식물 유전자 분석’을 통해 11종의 미기록 생물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미기록 생물은 조류 4종, 곤충 4종, 해양무척추동물 3종 등이다. 조류는 멸종위기 2급인 참매, 전연기념물 원양, 겸은가슴을

떼새, 뼈 يكن도요 등이고 중국머리먼지벌레, 극동흑개미, 광불이꽃 등, 무궁화밥나방 등이다. 또 해양무척추동물은 지렁이ゴ동, 겸은고랑딱개비, 검정꽃해변말미잘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해 생물학적, 유전자원으로 특수성을 가지는 해국(海菊, 해변국)의 유전체지도(총 119개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포함해 독도의 지형과 경관, 포유류, 조류, 식물, 곤충, 해양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7개 분야의 생태계 사진과 해설을 수록한 도감인 ‘독도의 생태계’를 발간해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독도의 해국



검은기슴물떼새



검은고랑딱개비

자연어로-양식,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비슷

북해에서 대구와 넙치를 잡는 것이나 연어, 틸리피아를 양식하는 것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그러나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면 자연산 물고기를 잡는 어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자연 어로나 양식이나 환경 영향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북해 어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연료 소비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어로행위를 생물 다양성 손실과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새로운 어로 기술과 연료 절약 기술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발사업 환경규제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환경부는 17일 “개발사업과 관련 한 각종 환경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사업예정지 주변의 환경질 측정자료와 국토환경 평가, 문화재 관련 정보 등을 인

터넷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멸종위기 동식물, 대기질, 소음, 법적보호구역, 수질환경 규제지역, 지정문화재 구역 등 모두 78가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iaiss.go.kr>)에 접속하면 된다.

/연합뉴스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전북부안 대표이사 010-7570-7525

경주 쌍암동(유동시설) 대표이사 010-7570-7525

경주 대표이사 010-7570-7525